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3대 의제, 6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3대 의제, 6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GREETINGS

“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사회복지실천연대(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는 6·1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선거 복지정책 제언집'을 발간합니다.

”



“의정부 행복특별시”라는 명칭처럼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행복하려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비로소 모든 의정부시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의정부 시민분들을 대표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더 행복한 의정부시를 꿈꾸신다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박춘섭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의정부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기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더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언집이 실효성 있게 쓰임받기를 바라며,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민민, 민관파트너십 구축,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협의회장 윤연희

CONTENTS

I

04 사회복지정책 3대 의제, 6대 핵심공약

- 06 1. 사회복지회관 건립
- 07 2.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 08 3. 사회복지 좋은 일자리 확보
- 09 4. 사회복지인력 안전 확보
- 10 5. 민관협력 강화
- 11 6. 복지전달체계 강화

II

12 사회복지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 14 아동복지관 건립 및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추진
- 15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형 센터 설립
- 16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 17 50플러스 센터 설립(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 18 수어통역사 증원 및 3차 병원 전문 통역사 배치
- 19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활성화
- 20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지원 마련
- 21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 22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공공분야 우선 수탁제도 마련
- 23 노숙인 등의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지침 명료화 및 지원제도 마련
- 24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적정 인력 배치
- 26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셔틀버스 운행
- 27 사회복지기관·시설 브랜드 통일화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I

사회복지정책 3대 의제, 6대 핵심공약

1. 사회복지회관 건립
2.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3. 사회복지 좋은 일자리 확보
4. 사회복지인력 안전 확보
5. 민관협력 강화
6. 복지전달체계 강화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복지정책 의제

| 3대 의제 | 6대 핵심 공약 | |
|------------------------|-------------------------------|--------------------------------|
| 사회복지회관 건립 | 1. 네트워크 구심점 (지역복지 하드웨어 구축) | 사회복지회관 건립 (사회복지 전문 공유공간 확보) |
| 사회복지분야 좋은 일자리 확보 | 2.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 단일임금체계 도입 |
| | 3. 사회복지 좋은 일자리 확보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 | 4. 사회복지인력 안전 확보 | 사회복지인력 적정 배치 |
| | |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
|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 5. 민관협력 강화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보완 |
| | | 이용시설 권역별 균형 배치 |
| | 6. 복지전달체계 강화 | 국장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

사회복지회관 건립

1 제안 과제

- ◎ 사회복지회관 건립

2 제안 배경

- ◎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 필요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교육, 의료보건, 지역공동체를 대표하는 직능단체 간의 연대 및 협력증진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필요
 - '공동사업 추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수행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
 - 산재된 직능단체들을 연합함으로써 상호 네트워크 형성 및 자원의 효율적인 전달, 각 단체들의 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의 효과
- ◎ 공간활용의 극대화
 - 경기도 31개 시 중 8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로 공간확보의 어려움
 - 「행안부 2022년 2월 기준 통계자료」 면적기준 23위, 인구기준 14위
 -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보유치 못한 직능단체가 대부분으로 유상임대를 통한 운영으로 인해 지출되는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 초래
 - one-stop 복지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수행
 - 의정부시 사회복지 정책 및 기관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역사관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의식 고취
 - 사회복지정보센터 및 의정부시복지서비스 앱을 활용한 복지정보관 운영을 통한 시민 개개인 맞춤형 복지 전달 및 대시민 홍보의 장
 - 사회복지시설 생산품 소개 및 판매가 가능한 전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창출
 - 회의실, 교육실, 전산실, 공연장 공유를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전달

1 제안 과제

- ◎ 단일 임금체계 도입
-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2 제안 배경

- ◎ 유형 및 지역 구분 없는 동일한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인력 임금적용 기준 제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차별적 기준으로 인력 채용 및 근무연수 등에 악영향
 - **(유형별)**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각각의 상이한 인건비 기준 존재
 - **(지역별)** 현행 서울, 인천, 제주 등 3개 지역 개별기준 존재('22년 부산, 대구 개별기준 적용 예정)
 - 소관 부처에 따른 개별기준 존재로 임금 격차 발생
 -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종사자의 평균 보수 총액 2,869만원수준, 지속적인 기본급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절대 수준은 매우 낮으며 동종 민간기관과 비교하여 10~20%가 낮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다 연간 100~1,000만원 내외로 낮음
- ◎ 지방자치단체의 단일 임금체계 도입의 확산
 - 서울('11년), 제주('15년), 인천('20년), 대구('22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 분야의 단일임금체계 도입 중
 - 서울의 경우 21년까지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동일 처우를 보장하여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할 계획
- ◎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의 보수수준 향상
 - 동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2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현 경기도에 13개의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사회복지 좋은 일자리 확보

1 제안 과제

- ◎ 사회복지인력 적정 배치
- ◎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2 제안 배경

- ◎ 「근로기준법」도 준수하지 못하는 인력배치
 -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일 8시간 노동 실시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노동강도 및 불합리한 인력배치기준 등 구조적문제* 해결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의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시 생활지도원 1인당 담당하는 이용자 수가 과다해지는 문제 야기
 - 현행 인력배치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분쟁상황 발생 가능성 존재
 - * 법령 위반 발생, 노동자 임금감소 및 복지대상자 돌봄서비스 공백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과 역할에 부정적
- ◎ ‘예산의 한계’로 비정규직 양산하는 복지 분야의 인력정책
 - 한시적 돌봄 인력 등 긴급돌봄 관련 단순 일자리 사업비 편성으로 단기 비정규직 채용 증가
 - 코로나 시국 긴급돌봄 단기일자리 양산, 노인·장애인·아동분야 등 긴급돌봄 인력 6개월 채용 뒤 실업
 - 비정규직 차별 문제 심화
 - 사회복지시설 사업들의 전문성과 유사한 노동 가치에도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 별도 보상체계* 적용
 - * ▲정규직 인력보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신분보장, ▲정규직 인력보다 적은 복리후생
 -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정착의 대상에서 비정규직 인력들이 제외되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더욱 악화
 - 이러한 차별의 심화는 사회복지인력의 직무 불만족뿐만 아니라 정규직 종사자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1 제안 과제

- ◎ 사회복지인력 안전 관련 법률 보완
- ◎ 사회복지인력의 심과 회복을 위한 '트라우마센터(가칭)' 설치

2 제안 배경

- ◎ 심각한 수준의 폭력피해 경험 및 폭력 노출로 인한 부정적 정신건강 초래
 -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
 -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70.7%는 언어·정서·신체등의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언어폭력은 60.1%, 정서 폭력은 43.2%, 신체폭력은 35.9%, 정보적 위협은 32.2% 순으로 나타남
 - 폭력을 경험한 경우 더 높은 정서적 소진 및 부정적 정신건강 야기
 -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소진 수준이 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특히 더 소진을 경험함
 -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수준이 폭력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폭력에 노출된 경우 특히 더 높은 수준을 보임
- ◎ 사회복지인력의 치유 및 회복 등을 위한 환경적 지원 필요
 - 공무원의 경우 직원연수원 등의 운영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및 소진 극복을 위한 쉼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극복 및 회복을 위한 지원 환경은 전무한 상황

1 제안 과제

-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보완
- ◎ 이용시설 권역별 균형 배치

2 제안 배경

-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 등에 따른 민관협력의 필요성 증대
 - 급증하는 복지 욕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 증대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배치 불균형
 - 보건복지부는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관 1개소 설치의 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의정부시는 28년 만에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길 만큼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균형적 설치가 미비함
 - 인구구조 특성을 고려하여 3종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이용시설(커뮤니티 센터 등) 설치 활성화 필요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강화

1 제안 과제

- ◎ 국장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2 제안 배경

- ◎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전과 새로운 복지수요 출현에 따른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의정부시의 출산율은 0.7명으로 경기도 평균 0.8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전통적 복지대상자에서 더 나아가 청년, 신중년, 단독가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 ◎ 사회복지제도 신설 및 대상자 확대에 의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과중
 - 의정부시 예산의 53%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복지제도 및 서비스가 신설되고 있음
 - 제도 신설 시 수행인력 등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아 기존의 공공복지 최일선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 가중 및 소진은 심각한 수준임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II

사회복지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 | | |
|-----------|--|
| 아동 청소년 | 의정부시 아동복지관 건립 및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추진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형 센터 설립 |
| 노인 |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의정부시 50플러스 센터 설립(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
| 장애인 | 수어통역사 증원 및 3차 병원 전문 통역사 배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활성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지원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
| 자활 노숙인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공공분야 우선 수탁제도 마련 노숙인 등의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지침 명료화 및 지원제도 마련 |
| 지역 복지 |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적정 인력 배치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셔틀버스 운영 사회복지기관·시설 브랜드 통일화 |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영역별 주요 정책과제

| 6대 주요영역 | 13대 주요과제 |
|---------|--|
| 아동·청소년 | 아동복지관 건립 및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추진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형 센터 설립 |
| 노인 |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50플러스 센터 설립(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
| 장애인 | 수어통역사 증원 및 3차 병원 전문 통역사 배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활성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지원 마련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 |
| 자활·노숙인 |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공공분야 우선 수탁제도 마련 노숙인 등의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지침 명료화 및 지원제도 마련 |
| 지역복지 | 인구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적정 인력 배치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복지셔틀버스 운행 사회복지기관·시설 브랜드 통일화 |

아동복지관 건립 및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추진

1 제안 과제

- ◎ 아동이 행복한, 가족이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관 건립
- ◎ 찾아가는 아동복지, 학교 안 지역아동센터 추진

2 제안 배경

- 의정부시 사회복지 총 예산 중, 노인(만 65세이상) 대상 35.1%, 영유아 대상 16.4%, 생계 급여 8.2%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5.1%에 불과함(2021년 7월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 현황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
- 아동에 대한 공적 지출은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아동에 대한 돌봄 및 교육에 대한 투자로 사회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반드시 증가하여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동까지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한 아동복지관 설립이 필요함.
- 아동복지관, 하나의 공간에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센터, 상담치료실, 공립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함께 운영되어 아동을 위한 투자, 아동보호 예방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함.
- 아동은 소유의 대상도 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그 어떤 대상도 아닌, 그저 아동 그 자체임. 그러나 현재 학교 교육의 실상은 오로지 성적, 대학이라는 목표를 놓고 그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부진아, 비행청소년으로 낙인감을 줌.
- 학교는 최대한의 인격형성과 최소한의 지식습득에 그 목표가 있어야 할 터,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의 배움터가 되어야 함. 이에 아동복지와 교육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학교에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입이 필요함.
-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성공을 가로막는 학업 및 비학문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이에, 미국의 대표적인 학교사회복지 모델인 CIS(Communities in School: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단체)를 학교 안에 개관할 것을 제안함.
- 이미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안으로 이동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 및 학부모와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살릴 수 있음.

1 제안 과제

- ◎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치료형 센터 설립

2 제안 배경

- 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 도시 21년 전국인구대비 청소년인구(8,320,787) 비율은 약16.1%, 의정부시 인구대비 청소년 인구(76,393) 비율은 약 16.5%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인구 수.
- 청소년복지시설의 현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의정부시 청소년복지시설은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각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견과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심리·정서적 문제,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체계는 없는 상태임.
- 법적 근거로 설립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설치되지 않음. 그러므로 기존 시설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여 문제가 되는 모든 사례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로 제 기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1 제안 과제

- ◎ 고령친화도시 추진 및 시립노인요양원 건립

2 제안 배경

- 2026년 초고령사회 도래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 대응 필요
 - 2026년 초고령사회 예상(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0% 이상)
 -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해 고령친화도 조사, 포럼 개최, 의정부시 가이드 라인 개발 연구, 조례 제정, 고령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 수립 등을 하여야 함.
 -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노인 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규정하며, 노인의 심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성 질환 증가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의료 욕구 충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정부시 노인인구 추이와 의료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하고, 노인전문 의료복지서비스 어르신 돌봄 치료의 공공성 확보와 제공시설에 대한 공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시립노인요양원(치매전담) 건립 사업계획 수립의 검토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함.

50플러스센터 설립(인생이모작 지원센터)

1 제안 과제

- ◎ 50플러스센터 설립 (인생이모작: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

2 제안 배경

● 100세 시대 새로운 인생주기인 50+세대 등장

- 은퇴와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중년층(만 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사람)의 '준비되지 않는 노후'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
- Gap year 휴식과 재교육 관련 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제2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 필요

● 시민이 공감하는 차별화된 50+사업 필요

- 근로기간이 늘어난 수명에 비례해서 늘었고, 근로의 형태 역시 일만 하면 되던 과거와 달리 100세 시대에는 일과 교육을 병행하는 형태로 전환
- 여가나 개인 활동을 위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싶지만, 생계만을 위한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일과 활동(고용)에 대한 관점 전환

● 50+세대의 신문화 확산 및 사회참여를 선도하는 혁신 플랫폼

- 50+세대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의 지원대상인 동시에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달리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새로운 세대
- 새로운 노년의 상,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중년 확인

1 제안 과제

- ◎ 수어통역사 증원
- ◎ 3차 병원 의료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2 제안 배경

- 의정부시수어통역센터는 의정부 지역 3000여명 농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관공서 및 유관기관, 단체 등의 행사나 정보 전달을 위한 수어 통역을 단 4명의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농인과 보건소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이 폭주하는 상황이 발생됨.
- 주52시간제 근무시간이지만 센터의 수어통역사들은 출장 중에 영상통화로 통역을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농인들의 통역을 수시로 요청받아 해당 근로 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의정부시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의 증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통역사 증원을 통해 농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통역을 지원하거나 센터 내에서 급하게 필요한 통역 지원 등으로 농인들의 일상 생활 삶의 질을 높여야 함.
- 경기 북부에는 3차 병원이 2개(성모병원, 을지대병원) 있고, 모두 의정부에 위치해 있어, 의정부 농인만이 아닌 북부의 농인들 모두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3월, 을지대병원이 개원하여 이용하는 농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2곳의 통역은 모두 의정부시수어통역센터에서 지원 하고 있는 실정임. 성모병원만 해도 한해 600여건의 출장 통역으로 이동시간, 병원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고 특히, 입원하는 경우나 응급실의 경우(주말 등) 급하게 통역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통역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임.
- 병원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 전문 의료 수어통역사가 상주 배치되어 전문적인 수어로 의사소통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농인들의 입원, 응급실, 대기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임.

1 제안 과제

-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활성화

2 제안 배경

- 의정부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지원을 위한 점자블럭 등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거나 파손, 훼손된 곳이 많은 상황임. 또한, 공공기관(관공서, 경전철, 도서관, 공원 등)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 시각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제2기 의정부시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에 의해 '턱 없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사업이 시작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파급력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동권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장애인(가족) 화장실 설치 등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어르신, 어린 아이와 이동하는 부모에게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인지해야 함.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 지원 마련

1 제안 과제

- ◎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 및 지원

2 제안 배경

- 발달, 자폐,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구강 위생관리가 어려워 치아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치과진료의 특성상 이동진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마취시설 등의 완비와 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공간과 시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의료원 한 곳이 전부인 상황임. 이로 인해 보건소 연계를 통한 단순 검진 외에는 원거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연계 및 지원이 절실함.

1 제안 과제

-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전문시설 확충
- ◎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교육이 어려우며, 학령기 이후 교육체계와 시설의 미흡으로 어려움 호소.
-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가족 스트레스 등 가족부담 가중.

2 제안 배경

-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발달장애인 참여기회 확대와 성인 발달장애 개별특성에 맞는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학습공간과 기자재 마련 등이 절실히 필요함.
- 의정부시 장애인의 인구 비중은 5% 수준이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평생교육의 기회를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며, 실용적인 성인 발달장애인 적응 평생교육 시설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개발과 정보망 구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체육 및 문화활동, 생활적응 평생교육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 됨,

1 제안 과제

- ◎ 근로 빈곤층 포괄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 ◎ 자활 사업단 공공분야 우선 수탁제

2 제안 배경

- 근로 빈곤층 포괄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
 - 자활사업이 공공부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근로 빈곤층까지 포괄하는 정책대상자의 변화를 위한 정책의 개편 논의가 필요함.
 -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절대빈곤층에 편제되어 있음.
 - 자활사업은 1차 및 3차 사회안전망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절대빈곤층 및 근로빈곤층, 경계성빈곤층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포괄적 사업 진행을 통해 대상자의 단계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의 세계로 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사업 구성이 필요함.
- 공공분야 우선 수탁제
 - 규모의 경제에서 열악한 자활 및 노숙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이 공공분야에서 우선 수탁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1 제안 과제

- ◎ 노숙인 등 자활사업과 관련한 지침의 부재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유형의 지침 마련
- ◎ 노숙인 등 비주류대상에 대한 시장형 사업단(경기도 리스타트사업 등 연계) 운영지침, 지원예산 등 기준 마련

2 제안 배경

- ◎ 체계적인 노숙인 자활사업 운영기준 마련 필요
 - 노숙인 자활사업에 유형 설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 형성
 - 각 대상별 일자리사업(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등)의 경우 일자리 유형, 지침 등이 제시됨으로써, 체계적인 일자리 운용 및 자원확보가 용이함.
 - 현재 제도권 내 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사용에 국한됨
 - 현재는 각 시설마다 필요에 의한 단일사업을 실시 중임,
 - 특히 시청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은 대부분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설치 운영 등 제한적인 운영에 국한됨
 - 제도권 밖 대상자(노숙인)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 각 시설의 특징을 살린 자활을 위한 작업장 설치의 확대 필요
 - 지역복지형과 시장형 등으로 구분한 운영
 - 생산-제조-판매 등 조직구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필요시설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예를 들면 '엄마식당' 설치, 생산-제조-판매-평가, 텃밭부터 식당 운영, 배달까지 각 공정별로 시설의 구성원들이 참여

의정부시민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제안 과제

- ◎ 의정부시 인구수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적정 인력 배치
- ◎ 지역사회 위기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2 제안 배경

- ◎ 의정부시 인구수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구 분 | 녹 양 | 장 암 | 고 산 |
|------|-----------------------------|-----------------------|--------------|
| 설 치 | 2020년 10월 | 1992년 4월 | 2020년 6월 |
| 소재지 | 체육로 254(녹양동) | 회룡로 192번길11 (장암동) | 정음로15(고산동) |
| 관할 동 | 의정부1,2동, 가능동,흥선동, 녹양동 | 신곡1,2동,장암동, 호원1,2동 | 송산1,2,3동 자금동 |
| 운영규모 | 3,702,44㎡ | 1,842.72㎡ | 555.69㎡ |
| 종사자 | 16명 | 14명 | 11명 |

- 의정부시 인근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 인구수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확인기준 |
|------|------------|---|--------|
| 노원구 | 510,486명 | 9개 (월계, 평화, 상계, 노원1, 북부, 공릉, 마들, 하계, 중계) | 22년 3월 |
| 도봉구 | 316,098명 | 3개 (창동, 방아골, 도봉서원) | 22년 3월 |
| 성북구 | 431,892명 | 5개 (생명의전화, 장위, 길음, 정릉, 월곡) | 22년 2월 |
| 고양시 | 1,080,896명 | 9개 (원당, 원흥, 덕양행신, 흰돌, 문춘7, 문춘9, 일산, 향동, 지축) | 21년 8월 |
| 의정부시 | 458,466명 | 3개 (녹양, 장암, 고산) | 22년 4월 |

-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배치로 지역주민의 복지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의정부시와 인구수가 유사한 성북구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임
- 이에 의정부시 인구수에 적절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필요함
- 서울시는 2017년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종합복지관에 보조금 기본인력 19명 배치되어 있으며 인근 고양시 보조금 지원정원 46명~11명으로 배치되어 있음
- 물리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어렵다면 적정 인력이 배치되어 의정부 시민의 복지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위기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활성화

- 공공과 민간의 위기대응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법의 차이 등으로 협력체계는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음. 결국 시민들의 생활문제와 위기 발생 등에 관련한 욕구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의 생활 격차가 더욱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빈곤계층의 몰락과 중산층의 빈곤계층으로 나락 등은 빈곤계층의 증가를 가중시키며 시민들의 돌봄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 공공 복지인프라 확충에도 1인 가구 고독사 등의 발생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임
- 이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협력의 내용 구성 및 실행력 확보가 필요할 것임
- 민·관의 고유 역할 및 자율성 존중 원칙하에 기관별 강점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임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과정에서의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함

1 제안 과제

◎ 복지셔틀버스 운행

2 제안 배경

● 지역별 편차에 따른 복지기관·시설 이용 접근성 열악

- 의정부시는 4개 권역별로 노인, 아동, 청소년 등의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4개 권역을 세분화해 14개동(洞)별로 살펴보면 실제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인접한 동(洞)의 지역주민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됨.

● 돌봄의 공백 발생 서비스 이용 기회 제한

-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시설이 부족한 신곡2동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타 지역(흥선동, 녹양동, 자금동 등)의 사회복지 관련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이동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영역에 있어 크나큰 공백의 문제가 발생 되는 실정임.

- 이는 아동에만 해당 되는 사안이 아니며 세대별(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의정부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용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시설 별 이용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셔틀 버스 운행은 매우 시급한 상황임.

1 제안 과제

◎ 사회복지기관·시설 브랜드 통일화

2 제안 배경

● 복지기관·시설의 브랜드 혼잡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인식 문제 발생

- 의정부시의 경우 2019년 기준 의정부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이 53.03%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1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은 전국 평균 30.6%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인 45.2%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FGI조사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 의정부시에서 사회복지에 투입하는 예산 대비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과 삶의 질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63.1점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남.
-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 제고 및 의정부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복지자원 정보제공을 위해 통일된 표식을 만들어 부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발생 되는 문제와 욕구에 따라 지역주민 누구나 적절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발 행 2022년 4월
발행처 의정부시사회복지실천연대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 |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의정부시
10,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시장을
원합니다

발행 2022년 4월
발행처 의정부시사회복지실천연대
